

# '경제도약 선도 · 정의로운 도시' 를 향한 긴 여정에 오르다

## ▲민선7기 김제호의 선장이 된 박준배 김제시장

지난 7월 2일, 박준배 김제시장은 민선자치 7기의 주인공인 9만 시민과 함께 정의로운 경제도약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김제호'의 돛을 올렸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35년간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비록 관공일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단호히 거절하는 등 소신을 묵숨처럼 지키며 살아왔기에 도청에서 그의 별호(別號)가 '박청렴'과 '박소실'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전북도청 재임시절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그리고 새만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수천여 개 기업홍보관 방문, 순동산업단지에서 농기계기술개발센터 유치, 용담댐 취수요 김제 관로 개설, 김제시 승격, 새만금특별법 기초안 작성부터 군산쪽 새만금 산단과 부안쪽 새만금 관광단지 발주, 새만금 신항만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예산반영 등 전북도와 김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박준배 시장은 행정가로서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경제 중심역할을 하듯, 김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가치를 내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요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포부를 밝혔다.

##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 민선7기 주요사업

△인사정의 7.0 실천  
타시군보다 모범된 정책을 적극 착안하고 각종 공모사업들도 타시군을 제쳐 유치하며 많은 기업유치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승진서열 70% 이내에 들면 무조건 승진시키는 등 공무원 조직부터 혁신해 정의로운 김제시를 건설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특화산업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중자산업을 비롯한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공지능산업, 물류기계 장비산업 등 미래 특화산업 육성에 시장 역량을 집중해 나감과 동시에,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3,000명의 청장년·여성·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공격적인 기업 유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평선산단의 조기 분양 완료에 이끌어 낼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김제의 기초 마련

진봉 거점쪽 새만금 국제경협단지 중 100만 평 정도를 4차산업 도시로 개발 가능토록 하고,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규모 농식품 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와 포럼 개최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MICE산업) 육성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 6차산업 선도로 한중 FTA 극복



박준배 김제시장

- 공무원 조직부터 혁신
- 농생명·미래 특화산업 육성
- 시장직속 일자리위 설치
- 새만금 경제기지 중심 기초 마련
- 사회적약자 권익 증진 시책 전개
- 직소민원 신문고제 활용 추진



아울러 국외의 재배결연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365일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행정 이룩  
시민이 원하면 누구나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직소민원 신문고제를 가급적 매주 월요일 오후시간대를 활용해 추진하고 부득이 시장을 못만나는 시민들은 직소민원 대장에 기록하면 일정 순서대로 면담하여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해결해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간 소통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임기중 1회 정도 모든 경로당을 방문하

여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로당을 생활과 건강, 학습과 돌봄이 가능한 동고동락의 장소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생과 평화의 지속가능한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창출

무한한 매력을 지닌 전주와 같은 문화·관광? 농특체험장 등 소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서로 께어 '한민족 문화체험 벨트'라는 찬란한 목걸이로 재탄생시켜나가고, 관광투어버스 운행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도시의 면모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모악산축제를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격상시키고 지평선축제도 전제적인 우리 농경문화를 마음껏 체험하고 김제 농특산품 홍보장으로의 역할도 특색히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갈 계획이다.

## ▲시민 모두 '김제발전당' 으로 해내되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의로 경제도약을 선도하는 김제를 기필코 이루겠다며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갔을 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나후의 침체 위기에 빠진 김제를 경제도약 시키기 위해 청렴달사(淸廉達事), 청렴한 사람만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통달하여 성취함)의 마음으로 '정의롭게, 한결같이, 시민결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출항하는 김제호가 경제도약 시대로 원활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통합이 최우선인 만큼,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화합과 소통으로 '김제발전당'으로 하나되어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겠다."며 "정의로 경제도약 시킬 사명을 부여받은 시민여러분께서 동력원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로 나아가는 새만금 김제

새만금, 종자, 신산업으로 김제의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김제시